

오리온전기(주) 청산에 따른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문(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06. 10. 13.

제 안 자 : 김영호 의원 외9인

1. 주 문

- 오리온전기(주)를 헐값에 인수한 미국계 펀드 매틀린 패터슨이 3년간 고용 보장 등의 약속을 어기고 6개월만에 재 매각을 통해 회사를 청산 하는 등 외국 자본의 횡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외자 유치만이 살길이라는 논리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팽개치고 공단도시의 공동화를 초래한 정부에 각성을 촉구하고자함.

2. 제안이유

- 2005년 4월 오리온전기(주)를 헐값에 인수한 미국계 펀드 매틀린 패터슨이 3년간 고용 보장등의 약속을 어겨
-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1,300여 오리온전기(주)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해 정부 차원의 생계 대책이 절실하며
- 외국계 자본의 횡포로부터 무력한 시민들을 정부 차원의 보호 및 대응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므로 시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결의문(안)을 채택코자 함

3. 참고사항

- “붙임” 결의문(안) 참조

『 오리온전기(주) 청산에 따른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

결 의 문 (안)

2005년 4월 오리온전기(주)를 헐값에 인수한 미국계 펀드 매틀린 패터슨이 3년간 고용 보장 등의 약속을 어기고 6개월 만에 재 매각을 통해 회사를 청산 하는 등 외국 자본의 횡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외자유치만이 살길이라는 논리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팽개치고 공단도시의 공동화를 초래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시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외자유치만이 살길이라는 논리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팽개치고 공단도시의 공동화를 초래한 정부는 1,300여 우리시 노동자를 삶의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들어와 투자가 아닌 투기로 막대한 차익을 얻고 있는 외국계 자본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투기자본의 횡포로부터 무력한 시민을 보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1,300여 우리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려 정부 차원의 생계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한다.
4. 정부는 오리온전기(주) 매각과정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매틀린 패터슨과 오션링크 등 외국자본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여 구미시 전체에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10. 16.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